

정치무협소설 연구 — 무협소설과 정치서사

고 훈*

1. 서론
2. 정치무협소설의 흐름
3. 무협소설의 정치담론 전개 방식
 - 3-1. 행동주체에 따른 서사 전개 방식
 - 3-1-1. 인물서사 종속형
 - 3-1-2. 인물서사 주도형
 - 3-2. 서사 유형에 따른 전개 방식
 - 3-2-1. 지배체제 비판형
 - 3-2-2. 지배체제 수호형
4.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협소설과 정치가 결합된 형태인 ‘정치무협소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정치무협소설’이란 한국의 정치사와 무협소설의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장르라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대중들에게 소개된 정치무협소설 작품들이 ‘정치서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적 특수 상황 하에서 대중들은 정치라는 담론을 일반화 혹은 대중화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문학은 ‘정치’라는 소재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정치무협소설도 그 움직임 중 하나라 하겠다. 무협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사.

소설의 본질적 특성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짙기에 무협·정치 두 요소의 결합은 쉽고 자연스러웠다. 정치와 무협 모두 힘에 관한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소재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선택을 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동양적 판타지를 지닌 무협소설이 결합되어 대중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리만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무협소설’은 그 대중적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정치무협소설은 그 행동 주체에 따라 ‘인물서사 종속형’과 ‘인물서사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인물서사 종속형’은 사건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어 등장인물의 서사는 결가지로 취급되기에 작품 전체의 소설적 재미는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담에서부터 기원한 사건 중심의 단면구조는 지배체제를 비판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정치사를 무협소설의 특성으로 가장해 비판하는 정치무협소설에 적합한 서사구조이기도 하다. ‘인물서사 주도형’의 경우 전체 배경이 되는 정치사와 별개로 등장인물의 개인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서 비롯한 일대기 구조를 활용해 인물중심의 서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대중들에게 이야기로서 다가가기 쉽다.

대중문학 중 가장 대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인 무협소설은 지금까지 대중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정치무협소설 또한 변화 중 하나의 시도이다. 무협소설이 지닌 특유의 생동감과 활력이 민감한 주제인 ‘정치’와 결합되면서 단순한 감상이 그치지 않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과 더 나아가 행동 주체로서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음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장르 안에서 다양한 시도는 장르의 고착화를 막고 장르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무협소설은 바람직한 시도이며 이러한 시도가 무협소설 장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정치무협소설, 정치, 무협소설, 인물서사 종속형, 인물서사 주도형, 서사구조)

1. 서론

이 연구는 ‘정치무협소설’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를 통해서 일상에서 대중들 사이에 언급되는 정치담론과 대중문학 장르 중 하나인 무협소설과 결합되어 발생한 ‘정치무협소설’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치무협소설’¹⁾이란 한국의 근현대사에 얽힌 정치사를 무협소설의 요소와 결합시켜 만들어진 장르라 정의한다.²⁾

기본적으로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는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력 지향적이고 약육강식 강자존의 무협 세계는 자체로도 이미 정치적인 공간이다. 권력을 탐하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군상들의 대결은 판타지적인 무공과 환상적인 무술로 인해 부각되지 않을 뿐 본질 자체는 정치적인 장르가 바로 무협소설이다. 각 문파는 정치정당에 해당되며, 무림맹주는 절대 권력자를 나타낸다. 문파의 세력 여하에 따라 세상의 대접이 달라지고, 강호에 몸을 의탁한 협사들은 온갖 암투와 음모에 노출된다. 결국 무협소설은 현실의 정치판을 가상의 세계인 강호로 옮겨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협소설의 장르적 속성은 현실의 정치

1) ‘정치무협소설’이란 『대도무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아직 이에 대한 학문적 정리는 되어 있지 않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정치무협소설’을 한국근현대사에 얽힌 정치사와 무협소설이 결합된 형태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2) 정치와 무협소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대만 초기의 무협소설이 현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가상의 세계인 강호를 설정한 상황에 대한 선이해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술이 한국의 정치무협소설에만 국한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어 생략함을 밝힌다.

담론과 접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무협이 결합된 ‘정치무협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정치무협소설’을 통해 대중들은 민감한 주제인 ‘정치’를 쉽고 가볍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치무협소설은 ‘정치’라는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를 ‘무협’이라는 대중적 장르를 통해 가볍고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대중적 오락거리라는 측면 외에도 정치적 연대성 혹은 정치적 행동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무협소설이 지닌 장르적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광주의 『정협지』(1961)를 기점으로 무협이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후 무협소설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다. 와룡생의 『군협지』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후 그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한 가필 및 대필 작가 기용, 지나친 성(性) 묘사, 타 장르와의 결합 시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성인만화·추리·판타지·게임 등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도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데 일정부분 성공을 했다.³⁾ 본 논의의 대상인 ‘정치무협소설’ 또한 무협소설이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무협소설’은 한국의 정치사를 강호의 세계로 옮기고 있으며 치열한 정치적 투쟁과 암투에 무공대결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답답한 현실의 정치를 즐겁고 역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현실적 고민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로 인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며 추악하다고까지 여겨지는 현실정치에 대한 흐름과 그 내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무협소설이 지닌 장점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대중들에게 소개된 정치무협소설

3) 여기에서는 ‘정치’와 무협소설이 결합된 ‘정치무협’과 그 서사 양상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기에 무협소설과 타 장르와의 결합에 대한 논의는 추후 다루기로 하겠다.

작품들을 통해 ‘정치서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정치무협소설의 흐름

70년대 유신정권과 80년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정치’라는 담론을 일반화하거나 대중화하기 어려웠다. 집권층은 대중들을 지배하기 위해 특수기관을 이용해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활용해 대중들을 조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담론을 언급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그저 농담조의 유희로 소비되는 것에 지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문학은 ‘정치’라는 소재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정치무협소설도 그 움직임 중 하나라 하겠다.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정치와 관련해 화제가 된 사건으로 박영창의 『무림파천황』 필화사건을 들 수 있다. 박영창은 작품 속에 유물론적 사관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무림파천황』은 금서로 지정되어 폐기처분된다. 이는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풍자 또는 비판 혹은 옹호하려는 작가적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작품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담론을 무협소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내재화 시켰는가를 살펴보는데 논의를 한정한다. 그런 점에서 박영창의 『무림파천황』은 연구대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⁴⁾

4) 훗날 박영창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와 작품 속에 유물론적 사관을

일반적으로 유하의 『무림일기』(1989)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무협’이라는 콘텐츠와 정치적 담론을 연결지은 첫 작품으로 꼽는다. 유하는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된 시에서 ‘무림패왕 천마대제 만박(박정희)’이 ‘천상옥음 냉약봉(심수봉)’의 진기 분산에 휘말려 ‘낙성천마 금규(김재규)’의 일장에 맞고 척살되자 ‘광두일귀 동문혹(전두환)’이 중원을 평정하고, ‘칠청단(삼청교육대)’을 동원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수무극파천장(공수특전단)’으로 ‘하남’의 백성을 학살하는 이야기를 <무력18년에서 20년 사이>에서 풀어내고 있다.

무림맹은 다음과 같은 전갈을 보낸다

무림 비무대회가 열리면
무림제일문보다 소림파나 무당파가 우세
불쾌한 표현이니 비판하라

오늘있는 공심대사와 하남일존의 비무사진은 실지 말 것

신무림방에 소림파 제자들 화염장풍 쏘다
보도 보류 바람

분근착골 육골분시 같은 과격한 표현보단
단순한 혐도제압이라 순화시켜 쓸 것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곧 출판사에 그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미 인쇄소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서 그래도 출판되었다고 한다. 박영창이 구속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림파천황』도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어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박영창은 『무림파천황』을 통해 당대 정치적 문제점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려는 작가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무협소설이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 화제가 되었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어 연구대상으로 배제했음을 밝힌다.

중원에 愛夷酒 환자 일만명
사실무근이므로 보도하지 말 것

사천표국 색마 김귀의 채음보양술 사건은
단순히 차력음영대법이라 쓸 것

죽엽청과 삶은 만두 먹는
무림맹주 존영 크게 실을 것

(말 안 듣는 무협신문은 고량주 광고 잔뜩 줄 것)

-『오늘의 전서구-무림일기』⁵⁾

위 작품에서 보면 ‘공심대사’, ‘하남일존’과 같이 실제 인물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중국식 작명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 김영하의 『무협 학생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무림일기』는 무림맹주, 소림사, 분근착골과 같이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협소설적 요소들은 ‘무협’을 주제로 서사를 진행시키는 무협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작가가 풍자 혹은 비판하고픈 역사적 사실을 무협의 요소를 가져와 덧씌우는 정도로밖에는 작용하지 못한다. 결국 『무림일기』는 무협작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무협적 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유하의 『무림일기』 이후 김영하는 『무협 학생운동』(1992)에서 그 맥락을 이어간다. 전두대왕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연희방 소속 ‘류’와 ‘엽’의 이야기는 한국의 80년대 학생운동을 강호의 세계로 옮겨놓고 있다. ‘박통’, ‘공수단’, ‘전두대왕’, ‘계엄진법’, ‘아메대왕님’, ‘연희방’, ‘보안마귀’,

5) 유하, 『무림일기』, 창작과 비평사, 2013, 51-52쪽.

‘안기마귀’ 등의 용어는 『무협 학생운동』을 무협소설로 읽게 하기보다는 무협의 요소를 빌려와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사를 포장한 작품으로 감상하게 만든다.

80년대 군부독재가 끝나고 90년대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정치적 변화를 겪음에 따라 작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⁶⁾ 앞선 작품들이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90년대 들어 변화된 세상에서의 무협소설에서는 비판과 저항 못지않게 적극적 수용의 움직임이 보인다. 바로 사마달·유청림의 『대도무림』(1994)이 그것이다. 표지에 “한국 현대정치사를 무협소설화한 사상 초유의 가상정치무협소설!”이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무협’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작품이다. 기존의 작품들과는 달리 당대 대통령을 모델로 주인공을 설정했으며 그의 영웅적 행보를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나친 미화로 인해 체제 순응적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로부터 ‘정치’를 소재로 한 작품 중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 이정재가 쓴 『대권무림』(1997)은 “정치풍자실록”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무협의 세계를 빌어 정치사를 풍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작가도 국민들이 이 작품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⁷⁾

6)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다양한 ‘이념’의 시대로 변화했고, 한국의 대중문화 및 만화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훈, 『한국 스포츠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1쪽.

7) “정치 문외한이었던 작가가 갑자기 정치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독자에게 읽으라고 글까지 쓰는 이유에서다. 식자연하는 이들이 보기에 막돼먹은 이런 글을 연재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관심과 애정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이정재, 『대권무림』, 한빛, 1997, 8-9쪽.

창 밖으로 전동철마(電動鐵馬)의 불빛이 요란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무력 97년 네 번째 달의 봄밤. 한양성의 거리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벌써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처녀들이 연인의 팔짱을 스스럼없이 끼고 거리를 활보하며 봄밤의 정취에 젖어 들고 있었다. 쟁 걸음으로 귀가길을 재촉하는 중년사내들은 한차례 전작이 있었는지 별정계 상기된 표정이다. 거리의 풍광은 여느날과 똑같이 평화로웠다. 무림청문회가 연일 만인전시기(萬人電視機)를 통해 생중계되고 무림수뇌부는 온갖 무공과 귀계(鬼計)를 짜내 상대를 거꾸러뜨리기에 여념이 없건만 이곳 남산의 한자락에 위치한 신라반점(新羅飯店)의 한 객방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마치 무림의 일을 저 먼 나라의 일처럼 여기게 했다.⁸⁾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현대를 묘사함에 있어 용어만 무협화한 것에 그치고 있다.

제갈천의 『전사의 후예』(2004)는 2002년부터 3년간 연재된 작품을 모아 출간한 작품이다.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후손 이희옥과 장보고의 후손 장일정의 성장담이 무림천자성을 둘러싼 주변의 사건과 어우러지는 이야기다. ‘오마이뉴스’에서 작품을 소개하면서 “현실 풍자 무협소설”이라는 명칭을 썼듯이 현재 미국을 둘러싼 세계 정치사를 풍자하고 있다. 큰 역사적 배경은 미국의 911테러 이후의 국제적 상황을 이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고도 『전사의 후예』는 한 편의 무협소설로 충분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은 패러디되어 친숙함과 웃음을 주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정치무협소설 작품은 2017년 2월에 출간된 박철민의 『대권천하』다. 2011년에서 2012년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작품을 모아 출판한 것으로 ‘정치패러디 연재소설’, ‘정치풍자무협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출간 직전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본격정

8) 이정재, 『대권무림』 1, 한뜻, 1997, 126쪽.

치물이라기보다는 대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의 대권기행을, 무림(武林)계의 일인자를 향한 무도인들의 쟁투를 모티브로 그린 여행기이다.”⁹⁾라고 밝히고 있다.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협’보다는 ‘정치’에 중점을 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림일기』, 『무협 학생운동』, 『대도무문』, 『대권무림』, 『전사의 후예』, 『대권천하』〉

전술한 바와 같이 무협소설의 본질적 특성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짙기에 무협·정치 두 요소의 결합은 쉽고 자연스럽다. 정치·무협 모두

9) <http://blog.naver.com/aropa100/220876281676>.

힘에 관한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소재로 남성층의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독자의 선택을 받기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TV드라마에서도 대하역사드라마나 정치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제작·방영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시청자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쉬운 소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동양적 판타지를 지닌 무협이 만나 대중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리만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정치무협소설’은 그 대중적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게다가 정치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무협소설이라는 매체는 일종의 방어제가 될 수 있다. ‘허구성’을 본질로 하는 ‘소설’이라는 점을 이용해 책임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무협소설의 흐름을 살펴보면 1989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연재를 해 2004년에 출간된 『전사의 후예』 이후로 2011년 연재된 『대권천하』가 나오기까지 약 7년간 정치무협소설은 단절되었다. 유하의 『무림일기』가 등장한 시기는 군부독재가 끝난 1988년 이후이다. 그 후 문민정부를 맞이해 『무협 학생운동』, 『대도무문』, 『대권무림』이 나오게 된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 지칭하는 시기에는 정치무협소설이 등장하지 않다가 정권 말기인 2011년에 가서야 『대권천하』가 인터넷 신문사 웹페이지에 연재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논쟁이 된 2017년에 출간까지 된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언론통제가 행해진 시기에는 정치무협소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문민정부·참여정부로 지칭되는 비교적 언론통제가 심하지 않았던 시기를 기점으로 작품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의 힘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정치’라는 화두는 남녀노소 및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대중들이 정치

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가장 대중적인 장르 중 하나인 무협소설과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정치무협소설은 그 독자층을 이미 확보한 긍정적 상황이라 하겠다. 물론 작품의 재미라는 대중문화적 측면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최근 독자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학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중의 호기심과 시의성에 부합할 수 있는 장르라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치무협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3. 무협소설의 정치담론 전개 방식

본래 무협소설은 무(武)를 빌어 협(俠)을 말하는 것이다.¹⁰⁾ 협이란 개념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개념이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협의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작가는 무술이나 무공이라는 역동적인 요소를 가져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협의와 대의는 상당히 큰 의미의 개념으로 다분히 철학적이며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의를 위한 희생과 이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복수와 복수를 위한 희생은 범인의 상식을 벗어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주제로 삼고 있는 무협소설은 주제의 전달 및 주제의 표면적 노출을 막기 위해 사랑과 복수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로 위장한다. 그러다 보니 눈속임을 위한 ‘무’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무협소설의 본질은 ‘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무협소설의 태생적 정체성이다.

정치 또한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이면서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개

10) 무협작가 양우생은 “‘무’는 일종의 수단이며 ‘협’은 목적이다.”라고 했다. 양수중, 『무림백과』, 서지원, 1993, 260쪽.

념이다. 다수를 위한 혹은 소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희생이 때로는 정당화되기도 한다.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무협소설과 정치는 접점을 지닌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의 교집합으로 인해 무협소설과 정치는 어우러짐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철학적이고 심오한 개념을 본질로 삼는 두 개체가 만나 중첩돼 거대 주제로 표출될 때 이를 받아들일 독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은 대중문학이 지닌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패러디의 형식을 빌려 풍자적이고 희화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무협소설의 도식적 틀에 정치적 색채를 가둔다.

다음 장에서 정치무협소설들의 서사 전개 방식을 분석해 무협소설이 대중소설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정치적 서사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행동주체에 따른 서사 전개 방식

정치무협소설 작품들의 서사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행동주체 즉 등장인물의 서사가 작품 전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따라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1. 인물서사 종속형

이는 인물들의 서사가 정세(政勢) 서술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들은 실제 기록물을 인용 게재하거나 개인들의 체험을 수록하는 뉴저널리즘 문학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실제 정치사적 사실의 흐름이 작품 전체의 주서사가 되며 등장인물 개인사가 결가지로 붙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텍스트의 역사반영 특성을 보여

준다. 대표적인 방식은 실제 인물들의 실명을 무협소설의 느낌이 나도록 중국식 작명으로 바꿔서 등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배경을 현대에서 강호의 세계로 옮겨 무협이라는 장르적 분위기로 포장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자들은 작품 자체의 서사를 수용하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정치사를 읽게 된다.

작가는 과거 혹은 현재의 역사를 무협의 상황에 맞춰 변형함으로써 매체변화에 따른 정치적 담론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드러내고 말하기엔 다소 거리낌이 작용하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가상의 세계를 빌려 자유롭게 표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무협의 틀을 빌려와 현실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물서사 종속형’의 경우 무협소설적 특성보다는 비판적 기능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작품 자체의 재미나 작품성은 다소 떨어진다. 행동주체에 따른 서사 전개 방식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작품성의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무협 학생운동』의 경우 작가는 “인물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¹¹⁾라고 하고 있으나 인물중심이라기보다는 80년대 학생운동사라는 커다란 역사적 흐름에 편승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읽힌다. 또 작가가 “80년대를 무협지의 형식을 차용해 그리기로 마음 먹은 이상”¹²⁾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형식을 차용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권무림』보다는 서사중심에 무게가 있다. 하지만 뒤에 언급할 ‘인물서사 주도형’에 비하면 인물중심의 서사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

11) 작가후기에서 작가는 “이 소설은 무협지의 틀로서 한 시대의 복잡다기한 역사적 사실들을 나타내고자 하였기에 인물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김영하, 『무협 학생운동』, 아침, 1992, 264쪽.

12) 김영하, 『무협 학생운동』, 아침, 1992, 264쪽.

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협 학생운동』은 ‘인물서사 종속형’과 ‘인물서사 주도형’의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도 하겠다.

‘인물서사 종속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경우 정치를 다루는 대부분의 입장은 ‘비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설의 허구성에 기대어 민감한 주제인 정치를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함으로써 그 비판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개인적 서사는 중심이 될 수 없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상의 사건들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다시 말해 실제 정치사의 흐름 속 인물의 행보를 무협소설적 요소를 차용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서사 종속형’에서 실제 ‘정치사’를 배제하면 작품 전체 서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개인 서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인물이 편승한 정치사의 흐름을 인지하게 되고, 작가가 의도한 비판적 기능을 수용하게 된다.

3-1-2. 인물서사 주도형

이 방식은 앞서 언급한 ‘인물서사 종속형’에 비해 인물의 개인사가 전체 서사를 주도한다. 『대도무문』의 경우 전체 배경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정치사를 가져오고는 있지만 그 배경 속에서 주인공 곡운성의 성장담이 주요 서사로 표출되고 있다. 독자들은 곡운성의 성장담을 읽으면서 역사흐름을 인식하기보다는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역사적 영웅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공감하게 된다.

『대권무림』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정치사의 흐름 속 크고 작은 실제 사건을 무협소설적 작법을 통해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대도무문』은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드러난다.

첫째, 주인공 곡운성은 천은선생을 만나 3개의 주머니를 받는다. 훗날 위기에 처했을 때 열어보라는 천은선생의 이야기는 『삼국지』의 제갈량 고사와 유사하며, 3개의 주머니는 고전설화에 등장하는 '3중의 보조요소'¹³⁾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운성이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일(一), 이(二), 삼(三)이라는 글자가 곁에 새겨져 있는 세 개의 금냥이 있었다. 천은 선생의 말이 이어졌다. “그것은…… 네 운명의…… 세 가지 열쇠이니라……, 너는 앞으로 십 년 동안…… 세 번의 크나 큰 갈등을 겪을 것이다……. 네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것을 순서대로 열어보아라…….”¹⁴⁾

둘째, 『대도무문』은 무협소설의 전형적 설정을 따르고 있다. 무림맹과 북룡문으로 대변되는 백도와 흑도의 전형적인 권선징악적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곡운성이 고향을 떠나 강호를 떠돌며 협행을 통해 대협으로 성장하는 협객성장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과 구파일방 간의 권력을 향한 암투가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등장인물의 서사가 종속되는 경우 대부분 현대를 무협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대적 기물이나 문화를 한자식으로 대체해 그대로 등장시킨다. 결국 독자는 중국식 작명법 혹은 현대어의 한자화를 통해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무협의 세계로 몰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도무문』의 경우 오롯이 강호의 세계를 무협소설의 설정에 따라 그려내고 있어 작품을 읽으면서 현대사와 별개의 배경으로 인식 가능케 한다. 그리고 무협소설이라면 빠질 수 없는 기연(奇緣)이 등장한다. 우연히 습득한 불상을 통해 신비한 무공을 얻게 되

13)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역, 새문사, 2000, 76쪽.

14) 사마달·유청운, 『대도무문』 2, 천마, 1994, 160쪽.

고 그 과정에서 금관사왕의 피를 마셔 만독불침의 능력을 얻는 장면을 통해 무협적 신비함과 흥미를 자아낸다. 뛰어난 스승과 조력자의 등장, 대의를 위한 희생 등은 『대도무문』이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작품이 아닌 무협소설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일조한다.

마지막으로 『대도무문』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기반으로 하기에 북무림과 남무림의 대결로 묘사되는 한국전쟁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곡운성을 만나 무술을 배우고 백도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되는 장천린의 행보는 한국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빨치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빨치산 이야기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익숙한 이야기인 만큼 이러한 설정을 접하는 독자들은 작품의 흐름에 친숙함을 느끼게 되고, 곡운성과 장천린의 엇갈린 삶의 방향에 더욱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공감하게 된다. 또 곡운성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담정’이 등장한다. 『대도무문』은 곡운성 외에도 이 담정에 대한 개별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 결국 『대도무문』은 주인공 곡운성의 개인 서사에 담정과 장천린 등 비중 높은 조연의 개별 서사도 추가해 한층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서사는 현대사를 변주한 전체 서사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서사 그 자체로서 작품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기법들로 인해 『대도무문』은 무협소설적 측면이 더 부각된다. 전체 서사에서 현대사에 기반한 배경을 제외해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 반면 ‘인물서사 종속형’의 경우 역사적 부분이 제외되면 서사가 이어지지 않거나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대하무협소설에서는 역사의 큰 줄기나 등장인물들의 정치적 행보, 성격 등은 가능한 한 실재와 비슷하게 풍자하려고 하였으나, 가상정치무협소설이라는 특수한 장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소설 속은 시간(예를 들면 해방 후 50년의 시간을 박진감을 주기 위해 10년으로 단축), 공간(무협이라는 특수한 공간 설정 때문에 중국을 무대로 펼쳐짐), 인물(소설상의 재미를 위해 선악의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짜여짐), 설정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과 풍자, 스틸감이 넘치는 무협소설 고유의 재미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집필되었다. (중략) 그것은 곧 근대사(近代史)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역사를 제외하고는 시간, 공간, 인물의 설정이 모두 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뜻이다.”¹⁵⁾

위의 인용문은 『대도무문』의 ‘작가 후기’로 밑줄 친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무협소설이 주는 재미를 더욱 중시해서 큰 줄기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상으로 설정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인물서사 종속형’ 또한 가상의 인물과 사건이 등장은 하지만 이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에 종속되어 별도의 서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도무문』은 배경 측면에서는 큰 줄기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사건·사고와 연결되지 않으며, 인물의 측면에서도 인물소개를 배제하면 실제 인물과 연관 짓기 힘들다. 이는 작가가 밝힌 바와 같이 소설적 재미 측면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즉, 『대도무문』의 경우 소설적 재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정치무협소설들과 비교해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물론 작가가 전문 무협소설 작가라는 점도 일부 작용하겠지만 작품 자체가 ‘인물서사 주도형’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하겠다.¹⁶⁾ 이런 점에서 ‘인물서사 종속형’과 ‘인물서사 주도형’은 차이를 보인다.

15) 사마달·유청림, 『대도무문』 12, 천마, 1995, 5쪽. 밑줄 인용자.

16) 정치무협소설의 서사 흐름 중 하나인 ‘인물서사 종속형’과 ‘인물서사 주도형’의 차이를 언급하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도무문』의 작품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대도무문』의 작품성에 관한 내용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2. 서사 유형에 따른 전개 방식

앞서 행동주체의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서사 유형에 따른 전개 방식을 통한 분류를 하고자 한다. 각기 서사 유형에 따라 정치 담론을 풀어가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3-2-1. 지배체제 비판형

무협소설이 정치적 서사를 전개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치 주도자, 즉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배층과 저항세력의 대결로 이어진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지배층의 폭정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집권 세력과 저항세력의 대결을 그리는 유형은 기본적으로 민담구조에서 기인한다.¹⁷⁾ 민담에서 민중은 그들을 억누르는 지배계층에 반발해 대결을 펼치게 되고 힘없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민중이 승리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비판적 시선을 지닌 정치무협은 이러한 민담구조와 유사한 사건 중심의 단면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초기 정치무협소설은 이러한 서사 유형을 보여주게 된다. 80년대 어두운 현대사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과 현실 세태를 잘 반영하는 무협소설의 만남은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는 ‘인물서사 종속형’을 탄생시킨다. 작가에게 있어 정치사적 사실을 뼈대로 하는 서사는 새로

17)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사, 2008, 23쪽.

운 이야기를 구성할 수고를 덜게 하고, 독자들은 작품 전체의 정치사적 흐름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민담에서 유해한 단면구조의 서사는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내포하게 되고 이러한 서사 유형은 자연스럽게 ‘인물서사 종속형’과 결합해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지닌 서사 유형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권무림』이 대표적 경우로 90년 후반 김현철 구속에서부터 시작해 청문회와 97년 대선 후보 경선 등 90년대 후반 한국 정치사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는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나 언론 매체가 지닌 사실 위주의 논리적이고 경직된 언어로 전달하게 된다. 반면에 정치무협의 경우 허구성을 가미해 한층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3-2-2. 지배체제 수호형

다른 하나는 정치 주도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녔으나, 지배체제를 풍자·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주로 영웅의 성장담과 관련을 맺고 있다.¹⁸⁾ 고전소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로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 이는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고전소설의 경우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서사구조는 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나타난다. 지배계층은 영웅성장담에 있어서 장애물로 등장은 하나 주인공과 직접적 대립 상태를 보이지 않는다. 지배층과 영웅에게는 이미 ‘공공의 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악의 대립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사

18)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사, 2008, 23쪽.

구조에서 지배계층은 주인공에게 부수적 장애요소 정도로만 등장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주인공마저 지배계층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전소설의 경우 입신양명을 이루고 관직을 수여받으며 가문을 복권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작품이 끝난다. 정치담론을 다루고 있는 무협소설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대도무문』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무림의 맹주가 된다.¹⁹⁾ 『대도무문』은 절대약이 존재하는 선악대결의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주인공과 절대악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인공은 대의명분을 지니고 지배계층의 자리에 오르며, 독자들은 이런 주인공의 행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배체제 수호형 서사구조는 본질적으로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은 크지 않다.



<좌측은 『대권무림』의 인물소개, 우측은 『대도무문』의 인물소개>

19)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곡운성은 무림맹주직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이는 무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인 '신검합일'을 이루기 위한 초인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무림 맹주직위 보다 더 높은 무림 절대 고수의 반열에 올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대권무림』과 『대도무문』의 인물소개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모두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무협소설이기에 인물소개에 있어서 실제 인물의 캐리커처를 사용해 ‘정치무협’임을 밝혀주고 있다. 우선 인물의 이름에서도 ‘인물서사 종속형’에 해당하는 『대권무림』의 경우 ‘회창(이회창)’, ‘대중(김대중)’, ‘종필(김종필)’, ‘공삼(김영삼)’ 등 실제 인물의 이름을 거의 변형 없이 사용해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인물서사 주도형’인 『대도무문』은 캐리커처 없이 읽을 경우 실제 인물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인물 소개에서도 두 작품은 차이를 드러낸다. 『대권무림』의 경우 ‘신한국방’, ‘무림청문회’, ‘내각공’ 등의 현실정치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인물에 대한 단편적 소개를 하고 있다. 더욱이 작품 내에서 등장하지도 않는 ‘제3후보’를 등장시켜 이것이 정치와 관련한 내용이며 대권주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도무문』은 각 인물의 성장과정이나, 업적에 대해 짧게나마 서술해 주고 있다. 『대도무문』은 ‘지배체제 수호형’으로 인물의 일대기적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개는 ‘지배체제 수호형’ 서사의 특징인 ‘일대기적 서사구조’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소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좌측의 『대권무림』의 경우 대사를 통해 무림지존에 대한 반역행위가 있다는 정도의 짧은 정보만을 알려주고 있는 것에 반해, 『대도무문』은 곡운성이 어린 시절을 금사도에서 보냈으며 중원무림에 나가 대활약을 펼치고 독고무적을 만나 고난의 길을 거쳐 해남검파의 장문인이 되어 무림의 대권에 도전한다는 일대기를 읽을 수 있다.

『대권무림』	『대도무문』
공삼거사 : “똑똑히 알려주시오. 현 무림지존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는 바로 반역이나 다름없다고 말이오”	곡운성 : 남해의 작은 섬인 금사도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며 청운의 꿈을 불태운다. 삼 년의 대혈란(大血亂)이 계속되던 난세의 시기를 중원무림으로 나가 대활약을 펼치고 자신의 명성을 천하에 떨친다. 야심가인 독고무적을 만나 그의 회유를 받지만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다. 훗날 해남검파(海南劍派)의 장문인이 되어 무림의 대권에 도전한다.

〈『대권무림』과 『대도무문』의 인물 소개〉

앞서 서술한 행동주체에 따른 서사 전개 방식과 서사 유형에 따른 전개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서사 종속형’은 민담에서 기원한 단면구조를 활용해 사건중심의 서사를 전개한다. 주된 목적은 지배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작품 자체의 서사적 흥미는 다소 덜하다.²⁰⁾ ‘인물서사 주도형’의 경우 사건보다는 인물 중심의 서사 중심으로 신화에서 비롯한 일대기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정치사와 별개로 등장인물 자체의 서사가 존재하기에 작품의 재미라는 측면은 강화된다. 반면에 비판적 기능은 낮아지기에 지배체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 인터넷에 게시된 독자들의 작품 후기를 살펴보면 ‘인물서사 종속형’의 경우 대부분 작품의 재미가 없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인물서사 주도형’ 특히 『대도무문』의 경우 정치라는 측면을 배제하고도 무협소설이 지니는 재미가 있다고 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은 개별 작품 분석 연구로 넘기도록 하겠다.

인물서사 종속형	(민담) 단면구조	지배체제 비판	사건중심의 서사	서사의 흥미 낮음
인물서사 주도형	(신화) 일대기구조	지배체제 수호	인물중심의 서사	서사의 흥미 높음

4. 결론

대중문학 중 가장 대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장르라 할 수 있는 무협 소설은 지금까지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했다. 가필·대필작가 기용, 과도한 성묘사, 만화와의 결합 시도, 추리·판타지·게임 등 타 장르와의 결합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정치’라는 시대 반영적 담론과의 결합을 시도한 ‘정치무협소설’의 흐름과 정치담론 전개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동 주체에 따라 서사를 ‘주도’하는 유형과 ‘종속’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물서사 종속형’의 경우 사건 중심의 서사로 진행되기에 실제 정치사적 사건을 허구화해 진행시키기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나 등장인물의 개인서사는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 소설적 특성이 약화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물서사 주도형’의 경우 등장인물의 개인서사가 실제 정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기에 작품 전체에서 정치적 색채를 배제시켜도 작품 감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중적 흥미를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화에서 비롯되어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민담에서 비롯되어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단면 구조에 따른 서사 양상도 파악해보았다. 이를 통해 무협소설이 대중문학 장르로서 지니고 있는 특성이 ‘정치’라는 화두와 연결되었을 때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무협소설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생동감과 활력이, 민감한 주제인 ‘정치’와 결합되면서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 더 나아가 행동 주체로서의 움직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시대별 상황과 정치무협소설의 등장시기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통제가 심했던 시기를 벗어나면서 정치무협소설은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언론통제로 인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대중들에게 정치무협소설은 정치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중적 장르 중 하나인 무협소설과 정치담론이 결합해 탄생한 정치무협소설은 정보전달 기능 외에도 답답한 세상을 벗어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 내지는 탈출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정치무협소설은 소구력을 지니게 된다. 무협소설의 주요 독자층은 물론 남성독자, 그중에서도 청장년층이라 하겠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층에 속한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 판타지와 정치적 관심도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무협소설이었다. 정치무협소설은 지배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통제에 대한 반발과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현실 도피적 욕구가 혼합되어 탄생한 대중 계몽적 사회부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무협이 등장한 사회적 특수성과 당대 독자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의의도 지닌다고 하겠다. 물론 정치무협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과도한 미화나 역사적 사실에만 치중해 무협소설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그렇지만 하나의 장르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장르의 고착화를 막으며 장르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움

직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무협소설과 정치서사의 결합은 폭넓은 독자층 확보 및 다양한 화두를 표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협소설 장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영하, 『무협 학생운동』, 아침, 1992.
박철민, 『대권천하』(전 2권), 북아로파, 2017.
사마달·유청운, 『대도무문』(전 12권), 천마, 1994.
유 하, 『무림일기』, 창작과 비평사, 2013.
이정재, 『대권무림』(전 3권), 한뜻, 1997.
제갈천, 『전사의 후예』(전 3권), 중원, 2004.

2. 논문과 단행본

- 고 훈, 『한국 스포츠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역, 새문사, 2000.
양수중, 『무림백과』, 안동준·김영수 역, 서지원, 1993.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사, 2008.

Abstract

A study on Political Muhyeop Novels
- Muhyeop Novels and Political Narratives

Ko, Hoon(Yonsei University)

The study is about a Political muhyeop novel, a combination of muhyeop novels and politics. Here, "Political Muhyeop Novel" is defined as a genre created by combining elements of Korean politics and muhyeop novel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how the works of politics and muhyeop novels are handled by The public, and try to discuss their genre.

Under Korea's special circumstances, it wa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generalize or popularize political discourse. However, popular literature begins to address politics. A full-scale movement grew, and the Political muhyeop genre was created. Its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muhyeop novel elements was easy and natural. Both politics and muhyeop novels had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ncourage and appeal to reader's and of being materials that stimulates the basic desires of the masses.

A Political muhyeop novels are divided into the two groups "inmulseosa jongsokhyeong" and "inmulseosa judohyeong" according to "inmulseosa jongsokhyeong" novels focus on events. The focus is a disadvantage for political muhyeop novels. According to folk tales, a one sided structure centered on an event is ideal for criticizing governance systems. Thus, a narrative structure is suitable for "inmulseosa jongsokhyeong" novels. A personal stories are central to "inmulseosa judohyeong" works. Therefore, the structures of biographyies are used for inmulseosa judohyeong novels. Biographies originated in mythology, they easily ga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The muhyeop genre has experienced numerous changes make the genre the publics choice. The political sub-genre is one of those changes. The inclusion of politics was not done to merely appeal to reader's emoyions ; it was done to make readers perceive themselves as political entities. With political muhyeop novels, one

can expect political movements. Different approaches to one genre are positive. In that sense, the political muhyeop genre is a desirable endeavor. Moreover, the endeavor makes extensive research possible.

(Key Words: political muhyeop novels, politics, muhyeop novels, inmulseosa jongsokhyeong, inmulseosa judohyeong, narrative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